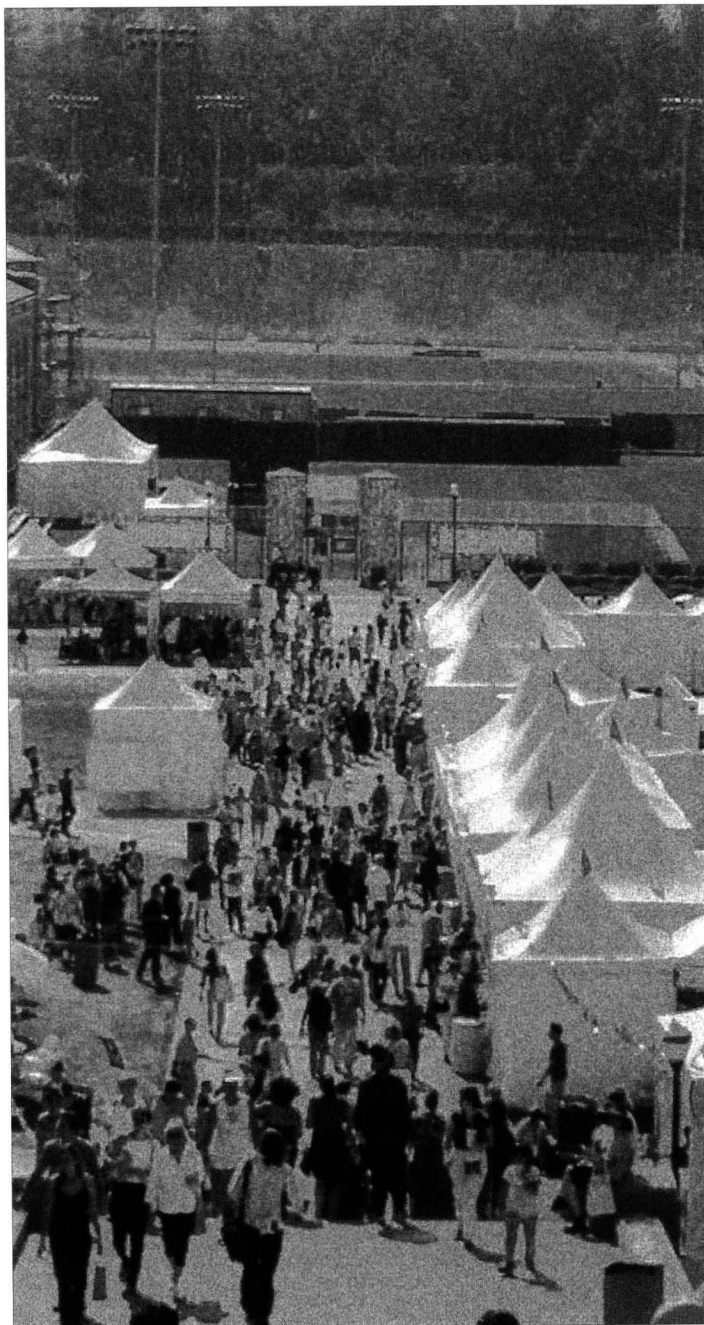


독자를 들뜨고 행복하게 하는 'L.A 타임스 북 페스티벌'

지난 4월 24,25 양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LA 교정에서는 '책의 세계'를 축하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북 페스티벌 L. A Times Festival of Books' (이하 북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번으로 아홉 해를 맞이한 북 페스티벌은 책을 사랑하는 작가와 독자가 다양한 행사와 강의를 통해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문화적 교감과 창조적 영감을 공유한 진정한 의미의 책잔치였다.

북 페스티벌은 1996년 언론기업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가 책을 창작한 작가들과 책읽기를 사랑하는 독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자는 단순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격려 속에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주요 책 행사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이는 어린이에게는 글 읽는 재미를 알려주고, 어른들에게는 평소 좋아하던 저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명실공히 모든 이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정에 마련된 L.A 타임스 북 페스티벌 행사장 기묘한 사이사이에 작은 것들을 이어 두루나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

올해 북 페스티벌은 400여 명의 작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95개의 강의, 300여 개의 전시부스 그리고 7개의 주요 행사무대, <더 타임스> 책시상식 등으로 꾸며져 많은 독자와 저자들이 함께 책 읽기와 쓰기의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행사였다.

먼저, 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강의들은 아트에서부터 출판비즈니스까지 크게 27개의 장르로 나뉘어져 때론 열띤 토의와 논쟁으로 때론 친밀한 대화와 조언으로 독자와 저자가 함께 하는 시간들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말썹꾸러기 데이빗>의 저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데이빗 새논을 비롯하여 2004 북 페스티벌의 공식그림을 제 공한 프랑스계 미국인 얀 나심베네, 어린이 호러그림책으로 유명한 그리스 그림리가 패널로 나온 '아동그림책 그리기' 강의에선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 배경설명과 작업환경 및 작업스타일 그리고 드림 프로젝트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풀어갔으며, 특별히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 작품구성 요령, 작업도구, 출판사 섭외 등의 유익한 정보와 조언도 들려주었다. 출판비즈니스를 주제로 열린 강의, '독립출판자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에서는 앞으로 독립출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 많은 출판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패널로 나선 <이라크에 대해 부시가 저지른 가장 큰 5가지 거짓말들 The Five Biggest Lies Bush Told Us About Iraq>의 저자

크리스토퍼 쉬어는 “비록 미국 출판시장에서 독립출판물의 독자들은 적은 수에서 출발하지만 열정적인 작은 그룹의 움직임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책을 통해 경험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상업출판사들이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인터넷이나 펀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한 <National Books>의 편집장 칼 브롬리도 상업출판사가 사회바탕을 지지하는 풀뿌리 문화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유기적 풀뿌리 문화를 잉태하고 키우는 것이야말로 독립출판을 이끄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자사 출판물의 성공사례를 들려주었다.

다음으로,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된 7개의 특별무대와 다채로운 행사는 독자와 저자가 함께 책을 통해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먼저, 미국 대형서점 반스 앤노블 무대에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작가 미치 앨봄, 부시대통령의 공보자문가 카렌 휴즈, 재미교포 작가 이창래 등 유명 저자들이 초대되어 독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작품세계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이민자의 이중적 삶을 다룬 <네이티브 스피커 Native Speaker>로 헤밍웨이 재단상과 펜상을 수상한 재미교포 작가 이창래는 최근에 발표한 중년남성의 일상을 그린 일인칭 소설, <하늘높이 Aloft>의 한 발췌문을 읽은 후, 그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설명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곧 이어진 사인회에서는 그의 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개인적 친밀감을 쌓는 시간 또한 가졌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무대는 커피 대신 음식이 메뉴로 제공됐는데 밴드들과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작가들이 무대로 나와 하루 종일 캠퍼스를 누비며 지친 관람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대형 할인점 타겟 무대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상상의 나라를 펴고 꿈을 키워가도록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공연을 비롯하여, 저자들이 직접 나



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강의들은 아트에서부터 출판비즈니스까지 크게 27개의 장르로 나뉘어져 때론 열띤 토의와 논쟁으로 때론 친밀한 대화와 조언으로 독자와 저자가 함께 하는 시간들이었다.

와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아이들의 친구 자주색 공룡 바니의 싱어롱 코너, 스쿨 하우스 락쇼, <만약 네가 돼지에게 팬케이크를 준다면>의 베스트셀러 작가 로라 너메로프, <덤피의 사과스프>의 저자 줄리 앤드류, <몰리문 세상을 멈추다>의 베스트셀러 작가 조지아 빙 등이 함께 했다. 문학적인 분위기로 연출된 시낭송의 무대는 <초기 중서부 지방의 주술적인 기억력 체계 Early Occult Memory Systems of the Lower Midwest>로 내셔널 비평 서클상을 수상한 B.H. 페어차일드와

<분단국가의 기록 Notes From the Divided Country: Poems>이란 시집으로 미국의 권위 있는 시문학상인 ‘윌트 휘트먼상’을 수상한 재미교포 수지 콕 등 유명 시인들이 나와 그들의 시를 낭송하고 독자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색다른 볼거리는 푸드 채널이 후원하는 요리시연 무대로 푸드 채널의 요리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저자이기도 한 인기 요리사들이 직접 나와 요리시연을 보이고 그들의 최신작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Etc 무대는 그야말로 갖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는데, 한국을 포함한 일본, 인디아의 전통음악단의 무용 및 연주 무대와 독서클럽의 추천도서 소개 코너, 가드닝 전문가의 파티를 위한 스타일 강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글읽기를 장려하는 프로그램 <Reading by 9> 무대에서는 각종 공연상영은 물론 많은 작가들이 나와 직접 책을 읽어주는 등,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책읽기에 관심 갖도록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서커스의 광대 코너도 마련되어 어린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마지막으로 올해 24회를 맞이한 <더 타임스> 상이 자서전, 소설 등 10개 부문에 대해 시상되어 북 페스티벌을 더욱더 빛나게 하였다.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이민자의 이중적 삶을 다룬 <네이티브 스피커 Native Speaker>로 헤밍웨이 재단상과 펜상을 수상한 재미교포 작가 이창래는 최근에 발표한 중년남성의 일상을 그린 일인칭 소설, <하늘높이 Aloft>의 한 발췌문을 읽은 후, 그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 설명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치밀한 행사진행

수십만 명의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주말을 제공하고 출판관계자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다 주는 성공적인 북 페스티벌 뒤엔 무엇보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치밀한 행사진행이 있었다. 먼저 많은 행사의 주축을 이루는 자원봉사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모집된 일반 자원봉사자와 UCLA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자원봉사자로 나뉜다. 이들 대부분들은 캠퍼스 내에서 프로그램이 적힌 행사 안내지를 배부하거나 각 행사위치를 알려주고 비상시 연락을 담당하는 안내소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강의 및 사인회, 기타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L.A 북 페스티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돋보인 점은 이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언론과 지도력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책벌레(Book Worm)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시키고, 그들의 이름을 신문에 실어주는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이 행사의 진행은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관객들이 손쉽게 목적지를 찾도록 깃발을 이용한 방향표시, 사전에 배부되는 무료 강의표들,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들의 강의를 녹음한 테이프 판매 및 북 페스티벌의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까지 모든 관객들을 위한 편의가 잘 배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넓은 캠퍼스 안에서 진행되는 강의들, 동서남북에서 열리는 무대 행사 등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면 지도만으로 목적지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이용되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안내원이나 또는 바닥의 화살표, 포스터가 이용된 것이 아니라 가로등 사이사이에 작은 깃발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캠퍼스 입구에서 남쪽에 있는 영홀 YOUNG HALL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입구에 걸려 있는 분홍색 깃발을 따라가다 초록색 깃발을 만나면 오른쪽 초록색 깃발만 쪽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일일이 지나치는 건물들의 이름이나 어느 건물 앞에서 좌회전해야 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간단하면서 기발한 깃발활용 방법은 수십만 명의 관객들이 손쉽게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측에게도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보통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에 참가하다보면 야외에서 열

리는 행사라면 몰라도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한정된 좌석으로 인해 자리 차지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게다가 실내 행사가 하루에 여러 개 있다면 다 듣고 싶어도 줄서는 일에 하나나 둘만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방지코자 후원업체 티켓마스터는 행사 일주일 전부터 무료로 입장표를 배부해 줘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토요일 10시와 11시에 인기작가의 강의를 있더라도 사전에 표를 받았다면 강의를 포기할 필요도, 아침 일찍 나와 줄설 걱정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혹여 듣고 싶었던 강의를 놓쳤다가 또는 들었던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모든 강의를 녹음되어 테이프 판매되었고 매년 새로 선정되는 북 페스티벌 공식 그림이 새겨진 기념품들은 여러 종류가 마련되어 판매되고 있었다. 테이프와 기념품은 행사기간뿐 아니라 행사가 끝난 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데, 매년 행사관련 기념품들은 이미 수집가들에게는 인기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북 페스티벌에서 작가들을 만나고, 강의를 듣고 책을 사기 위해 몰려든 많은 독자들 속에서 문득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정성껏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친절할 말 한마디에서, 열심히 구연동화에 귀 기울이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의 눈빛에서, 평소에 좋아하던 작가로부터 사인을 받고 어쩔 줄 모르며 미소를 짓는 어느 독자의 모습에서 이미 책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다. 교육, 정보, 오락의 자료적 기능을 넘어 문화적 가치로 생명을 얻으며 제각기의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자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북 페스티벌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 | 허선